

혼돈의 국내 정세 속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2025. 02. 12 <제55호>

하 용 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잭슨스쿨 한국학연구소장)

정책 제언

국내 정치가 국제정치의 기반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하고, 이번 국내 정치 사태가 보여준 것은 국내 정치의 성격과 안정이 갖는 국제정치 및 외교에 주는 중요성임을 다시 인식해야 함

- 한국 민주주의가 갖는 문명사적 의미 즉 탈식민지 시기 이후 비서구 사회에서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 등은 미국과 유럽 민주주의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적실성이 있음을 알려야 함.
 - » 민주주의가 갖는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를 깊게 인식해야 함. 특히 비서구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한국 민주주의의 대외적 함의를 재인식해야 함.
-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만연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재창조 사례로 전환하여 훼손된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수립해야 함.
- 정치적 재창조와 함께 이번 위기의 극복 과정을 새로운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기성 정책을 난발하는 근시성 국가에서 비전 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함.
 - » 현 권력 구조와 정치체계는 한국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이를 위해 대중과 소통하여 현 정치 및 정당구조의 재편이 필수적임.
 - » 외교정책의 국내적 기반을 갖추고 각 외교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국내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정치적 재창조와 함께 이번 위기의 극복 과정을 새로운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기성 정책을 난발하는 근시성 국가에서 비전 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함.

한국은 변화하는 미국의 정책을 기점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함

- 친미 또는 반미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을 버리고 미국 내 변화와 미국이라는 국가와 시스템 전반의 변화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해석이 필요함.
 - » 미국 내의 경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와 도전이 심각하여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기간 해결될 것이 아니고 냉전 기간 등 수십 년 누적된 것으로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심각성에 있음.
- 미국의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 인식을 바탕으로 단순한 안보 관계에 기초한 과거 미국 인식을 극복해야 함. 미국 국내문제의 해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미국을 접근하는 다양한 전략과 정책 구상해야 함.

- 종속(dependence)과 독립(independence)의 이분법에서 자주적 입장(autonomy) 개념을 도입해야 함. 자주적 입장이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안보 연계를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 관계에서 융통성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상황적 대처와 외교적 연계를 통한 한국 입장의 확보가 필요함

-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지역화 현상에 대비하여 동북아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화를 구상하고 실천할 시점임. 특히 미국에 지정학적 불가피성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일본과 양자 및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 미국의 신고립주의 노선과 정책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외교 영역 개척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한국 외교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개척할 분야가 글로벌 사우스가 되어야 함.
 - » 역사적 비극을 공유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정서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할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외교적 공간을 마련해야 함.
 - » 글로벌 사우스 외교는 한국 외교가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외교적 지평을 열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해야 함.
-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공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모든 외교정책은 그 성공을 위한 국내적 조건이 동시에 고려되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고한 정체성에 기초한 외교를 해야 할 것임.

문제제기

1. 한국 정치 사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고질적이고 만성적 정치적 양극화에 있고, 뿌리 깊은 양극화는 오랫동안 정치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음

- 배경에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던 한국정당 구조에 있음. 보수는 산업화 성과 이외의 새로운 비전 창출이 없이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의존해 왔고, 진보는 낡은 계급이론에 빠져 한국에 맞는 진보의 성격 규정에 실패했음.
- 정당은 한국 사회와 유리되어 한국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선거를 통한 권력 쟁취에 혈안이 된 집단으로 전락되었음.
-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치 없는 법리론과 법체계를 정치화하는 두 세력의 충돌이 깔려 있고, 결국 이번 사태는 정치 부재에서 시작되어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도 법리론과 정치적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음.

국내의 계엄 사태에 대한 인식은 우선은 경악이었고, 경악과 동시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태에 대한 해외 반응에 아주 민감했음

- 이의 배경에는 계엄을 군사정권과 연계해서 인식하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던 데 있음. 즉 대외적으로 이번 사태가 가져올 부정적 인식과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음.
- 동시에 이번 사태는 해외에서 단순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그동안 해외에서 얼마나 주목해 왔나 하는 것을 보여줌.

- 해외에서의 충격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여겨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오히려 놀라움을 표시한 것임. 이는 그동안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컸음을 반증함.

트럼프 하 미국이 신고립주의 노선을 택하는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가치 동맹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전 세계가 극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재활은 세계 민주주의 미래에 주는 함의가 큼

-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임을 분명함. 특히 중국과 비서구 탈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은 상당한 것임.
-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소생한다면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2. 새로운 민주주의와 국제정치 환경

민주주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목적론적 사고를 버리고, 끊임없는 실천 과정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한국 정치의 정치적 난국 타개의 계기로 삼아야 함

- 정치적 알력 속에 최대한 공정한 법적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상호 비방이나 단기적 정치적 계산을 극복하고 한국 정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새로운 정치구조와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전체에 새로운 비전을 통한 경쟁이 필요함. 이를 통해 산만한 정책의 난발로 인한 근시적 국가에서 이를 통합한 새로운 비전 국가 전환이 시급함.

국내 정치적 혼란과 함께 한국이 당면할 세계질서는 한국에 상당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지금까지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해 왔던 사고의 패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요구함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된 도전을 받고 있어 한국만이 예외는 아님. 그 도전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세계화의 추세가 쇠퇴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가 국내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과 같이 강요된 세계화로 시작하여 세계화의 혜택을 본 결과 탈세계화는 불가피하게 국내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 권력 구조의 변동을 수반할 것임. 미국의 공격적인 고립주의는 이전의 고립주의와 달리 미국 외교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예고함

- 국제정치 권력 구조에서 변동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휴전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달려있음. 즉 미국이 종전 이후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임.
 » 미국의 국내 여건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근본적 변화는 어려울 것임.
-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상되는 것은 지역별 지역화 현상의 가속임.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생존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도 새로운 여건으로 다가올 것임.
- 한반도 차원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사실상 탈 김일성화 과정임. 북한은 김일성 이래로 유지해 온 대남 통일 전략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유례없는 북한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김일성 체제의 사실상 수정 현상을 보이기 시작함.

3. 성공적 외교를 위한 국내적 기반 조성

정치적 안정과 단합, 지속 가능한 사회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을 위한 필수 조건임

- 한국 외교는 지금까지 지나친 대미 의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친미-반미라는 극단적 국내 정치가 판을 쳐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정치는 사실상 그 기저에는 대미 종속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새로운 국제환경과 미국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함.
- 과거 한국은 초당적 외교의 힘을 경험한 적이 없음. 초당적 외교 경험의 결여는 궁극적으로 대미 의존을 타성화하고 한국의 정체성에 기초한 외교의 성공을 어렵게 함.

국내의 제반 문제와 국제적으로 정상적 대응을 위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현행 정당 및 권력 구조의 개편이 시급함

- 현행 정당은 국내 및 국제현실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였음. 현 정당구조는 한국 정치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비현실적이고 의제적인 정책적 분화를 초래함.

사회적으로 골절되고 파편화된 사회를 공유하는 가치에 기초하여 활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수립이 절실

- 이러한 새로운 사회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 요인임. 한국 정치·경제 구조는 대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고 무자비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속수무책의 상태에 놓여 있음.
- 한국 사회를 더욱 원자화하고 사회 구성원을 공동체에 의존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음.
- 단순한 경제적 부의 공유를 넘어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은 국내적 안정과 국제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대외 관계 추진에 필수 요소가 될 것임.

한국 외교는 지금까지 지나친 대미 의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친미-반미라는 극단적 국내 정치가 판을 쳐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정치는 사실상 그 기저에는 대미 종속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새로운 국제환경과 미국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함.

[감사의 글]

그동안 US-China Watching을 정독(情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번 제55호를 마지막으로 US-China Watching은 발행을 마칩니다.

앞으로는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플라자 브리프 (Plaza Brief)'로 찾아뵙겠습니다. 플라자프로젝트 회원에 대한 안내는 www.plazaproject.org 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대욱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